

# 신안군생활개선회,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전개

### 도초면생활개선회 주관...회원 50여 명 참석 이해진 회장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신안군은 17일 도초면생활개선회 주관으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초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실천을 다짐하였다. 그 일환으로 현장에서 실내식물 심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신안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생태복원숲 조성을 위하여 타 지자체보다 서너배의 수목을 식재하고 있는 탄소중립사업이 주민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이해진 도초면생활개선회장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일상에서 탄소를 줄이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 수 있었다"면서 "군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사업에 앞장서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생활개선회는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군의 분위기에 발맞춰 전 읍면을 순회하며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정식 운영...5월까지 무료 맞춤형 산림 치유프로그램 마련

무안군은 지난 17일 무안을 물맞이 골에서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개장식을 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산 무안군수, 서삼석 국회의원,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과 기관 사회단체장 등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무안 연정산 자락에 있는 물맞이 치유의 숲은 무안읍에서 자동차로 5분 거리의 뛰어난 접근성과 양호한 산림을 가지고 있어 무안의 대표적인 숲속 힐링 장소이다. 이번에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80억 원의 사업비로 총면적 125ha에 치유 센터, 숲속화장실, 치유숲길, 치유정원, 수(水) 치유시설, 전망대, 자연암 폭포 등으로 조성됐다. 특히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숲길 걷기, 풍욕, 일광욕, 명상 등 힐링 숲 프로그램과 족욕 시설과 벽천, 자연암 폭포 등 물맞이 골의 풍부한 음이온을 활용한 수(水) 치유 프로그램, 소나무와 참나무가 어우러진 숲에서 숲속 요가, 사색 등의 운동 요법과 정신 수련 프로그램 등 총 7가지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문학관, 5년 연속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조기호 시인과 프로그램 운영...문학의 도시 면모 이어나가

목포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학관협회가 주관하는 '2023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5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역 문인이 문학관에 상주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 대상 문학강좌 진행과 문학큐레이터로서 활동하는 문학관 활성화 사업이다. 목포문학관은 사업비 2억4천7백여만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지난 2019년부터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온 목포문학관은 문학아카데미, 문학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받아왔다. 목포문학관은 올해 상주작가에 조기호 시인을 최종 선정했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창작 및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기호 시인은 1984년 광주일보 및 199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에 당선된 지역 중진 작가다.

저서로는 동시집 《숨은그림찾기》, 《반쪽이라는 말》, 《뽕 뚫어주고 싶다》, 시집 《이런 사랑》 등이 있다. 목포문학관은 조기호 시인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상주작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문학관 나들이', '동심으로 동안으로', '동시야 같이 놀자!', '시의 향기를 나누는 명시 산책' 등의 문학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성인대상 동시창작반인 '동심으로 동안으로'는 일반시민 대상 동시 쓰기 프로그램이고 '동시야 같이 놀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 글 쓰기 및 문해력 증진 프로그램이다. 또한, 시의 향기를 나누는 명시 산책'은 일반인 대상, 명시 감상과 낭송을 통해 시를 즐기고 생활화하는 취지의 독서동아리이다.

상주작가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선착순 25명 모집한다. 교육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목포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다. 문의는 목포문학관(061-270-8400)으로 하면 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 목포문학관 상주작가로 활동하게 된 조기호 작가가 문학관과 지역민 사이를 잇는 가교가 되어 문학이 지역민의 삶을 치유하고 지지하는 문학의 도시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군, 2024년산 공공비축 매입품종 새청무·신동진 변경

영광군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 협의를 거쳐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새청무·강대찬 품종에서 '새청무·신동진' 품종으로 변경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당초, 농식품부의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해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을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으로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중단할 계획임에 따라 지난 2월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강대찬을 선정했었다. 하지만, 신동진은 재배면적이 넓고 오랜 기간 농업인들이 재배해온 점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매입 품종을 강대찬에서 신동진으로 변경 결정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혼선이 없도록 당부드리는 한편 농업 소득증대를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영암도기박물관, 왕인문화축제 기간 '영암요 소성체험'



### 장작가마 불명·소원성취 장작태우기 등도 진행

영암도기박물관은 2023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맞아 오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영암요(장작가마) 소성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장작가마 소성은 국가사적 제338호 구림도기가마터 출토 재현품과 응용개발품 등 작품도기를 제작해 국내 최초의 고화도 시유도기인 구림도기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이다. 장작가마는 나무를 원료로 한 전통적인 소성방법으로 우연적인 효과가 장점이다. 이번 영암요 작품은 4월 7일 오후 2시 출몰 예정이며, 요변으로 인한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도기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이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도기박물관에서는 축제기간 영암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유료)으로 '월출의 달을 굽다'를 운영하고,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작가마 불명', '소원성취 장작 태우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월출의 달을 굽다'는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참여자를 모집하며, '장작가마 불명'과 '소원성취 장작태우기' 체험은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일반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문화와 예술의 일상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함평군, 의생활 문화 지원 '재봉틀 기초교육' 여성 농업인 직업역량 강화 도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여성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재봉틀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의생활 분야 일거리 창출을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 14명을 대상으로 '재봉틀 기초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이달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의생활문화관에서 진행된다. 또, 교육을 통해 배운 재봉틀 기술을 패션수막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실전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의생활 교육을 추진해 농업·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